

# Tokyo Pack 2004에 다녀와서

## 물류관리 및 수송에 관한 다양한 방법 제시

우현정 / (사)한국포장협회 관리부 사원

포장이란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지류, 합성수지, 목재, 금속, 유리병, 기타 포장 재료로 시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한국포장협회는 세계 유수의 포장전시회를 참관함으로써, 세계 포장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 국제 전시장센터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TOKYO-PACK 전시회에 참관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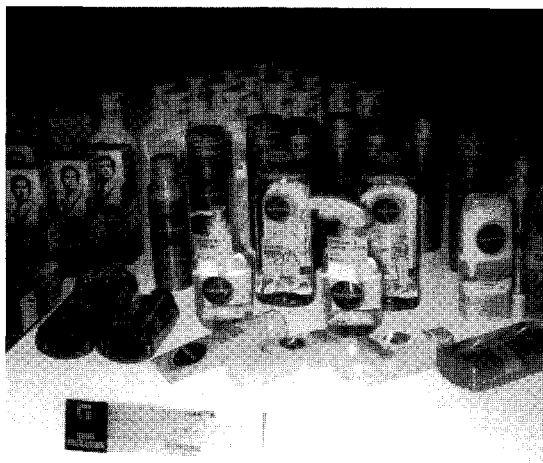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찾은 곳은 까루프(대형 할인마트) 식품포장관련 유통센터였다.

가전제품, 선물포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별반 큰 차이는 없는 듯 보였지만, 식품 포장은 하나 하나 소량의 날개포장이 주를 이루는 등 그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멋스러웠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인들의 세심함을 느끼게 하였다.

다음날 설레임 반, 기대 반으로 찾은 TOKYO-PACK 전시장은 역시나 선진국의 포장산업답게 규모와 진행이 매끄러웠다. 1966년을 시작으로

제20회를 맞이하는 도쿄팩은 미국의 PACK EXPO, 프랑스의 EMBALLAGE, 독일의 INTER PACK, 영국의 PAKEX와 함께 포장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5대 포장산업 박람회 중의 하나라고 한다. 특히 아시아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각종 기자재들과 지구 환경보전, 고품질과 안전성의 유지 및 자원의 재활용화를 위한 포장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 기술이 선보였다. 포장기계류, 포장 가공기계류, 식품 기계, 포장관련 기자재, 환경관련 기자재 등 510개 사가 2570부스를 전시해 매년 축소되는 경향이긴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는 컨테이너, 파렛트, 콘베어, 반송 시스템, 분류 시스템, 운반 기자재 등 TOKYO MAT(물류 관리전)가 동시에 개최되어 포장과 밀접한 물류관리 및 수송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크고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일정한 속도로 운반하는 기기를 보니 내심 떨어질까 불안하긴 했지만, 안전하게 수송하는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함과 신기함이 느껴졌으며, 좀 더 나은 제품의 완



▲ 도쿄팩 전시품

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동, 자동기계, 로봇의 다양한 기종을 선보인 포장인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다.

포장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환경적 요소로 대두되는 현재, 이번 전시도 플라스틱 용기보다 제지를 많이 이용하고, 완충제품도 스티로폼보다는 에어버블을 이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한 다양한 제품이 출품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완충 제품 중 재활용 종이로 포장한 특이한 제품과, 와인병 같이 깨지기 쉬운 제품을 비닐완충포장으로 박스 안 중간에 위치 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방법이었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도시락 용기 또한 제지를 이용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 디자인 역시 사람들로부터 상품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시각적 미까지 겸비하였다.

전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업체인 제로팩이란 곳에 들리게 되었다. 제로팩은 가정용 및 영업용 식품진공포장기, 진공포

장용 필름, 진공용기 생산판매 업체이다.

전시장에도 진공방식으로 가정에서도 식품 등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기를 선보였다.

이렇듯 가정에서도 쉽게 포장을 하여 맛과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장기기를 보니 우리나라 포장산업도 다른 선진국 나라 못지않은 포장인들의 자세를 보며 자부심마저 느끼게 되었다.

또한 전시장 한쪽에서는 good packaging이라는 이벤트로 우수 포장전을 전시하였다. 디자인을 중심으로 전시된 이 이벤트 역시 일본문화답게 야기자기한 포장으로 한껏 멋을 낸 디자인들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시각의 미도 갖췄지만 안전성을 생각한 제품의 포장, 재활용을 이용한 환경을 생각한 포장, 제품의 완성단계의 수송 마무리까지 앞서 말한 포장의 정의와 같이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가치를 보호하는 포장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았다.

점점 축소되는 듯한 전시가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포장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전시회 참관이였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의 포장산업에 비해 다소 뒤쳐져있다고들 생각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보고 느낀 결과, 우리나라의 포장산업도 얼마든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것으로 개척해 포장산업에 이바지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포장인들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포장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